



# HANSUNG EDUCARE

2015 교수법 소책자 Vol.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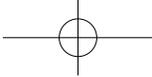


# [ 발간사 ]

안녕하세요, 교육역량개발센터장 경영학부 이형용 교수입니다. 이제 동장군의 기세도 한풀 꺾여서 길게만 느껴지던 겨울도 끝나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훌륭하신 많은 교수님 들께서 학생들을 위한 “좋은 강의란 어떤 것인가?”란 주제로 글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지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과대학의 김남운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란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 인문대학의 조규태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란 학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의”, 사회과학대학의 전주상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란 배려를 통한 균형이 만든 어끠 즐거운 강의”, 예술대학의 김효용 교수님께서 “좋은 강의란 사전준비, 본 강의, 사후관리가 일체(一體)된 강의” 라는 제목으로 금년도 Hansung Educare의 2부 내용인 “좋은 강의”라는 주제에 대한 물음에 답을 주셨습니다. 또한, 공과대학의 유상미 교수님께서 대교협 연수프로그램인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폰 앱 활용 교수법 과정”에 참여하신 소감을 투고해 주셨습니다. 또한, 인문대학의 박지영 교수님께서 강의컨설팅에 참여하신 소감을 솔직하게 작성해 주셨습니다. 각 교수님들의 교수법 Knowhow와 주옥과 같은 강의의 비법과 교수법이 담겨있는 내용을 공유해주셨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경험한 강의를 바탕으로 한 “좋은 강의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글을 실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강의를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학생들을 정성을 다 하여 지도하시고 사랑으로 교육하여 주시는 교수님들의 강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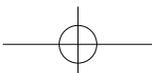


그리고,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는 교육개발연구원에서 이름을 변경하고 조직과 규모를 확장하여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학 구조개혁평가와 특성화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학내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한성대학교의 성장과 도약을 위하여 과감한 혁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변화를 시작하였고, 그 시발점에서 교육역량개발센터도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이에 학교의 현주소와 현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 위하여 이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각 학부나 학과에서 준비하시는 구조개혁이나 특성화 작업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였습니다. 신입교수님들께서 필수적으로 다녀오셔야 하는 신입교수 연수교육과정과 교수님들의 강의를 분석하고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는 강의컨설팅을 포함하여 여러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역량개발센터는 교수님들께 우수강의법과 교육기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제공해드리려고 상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강신일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새롭게 부임하신 유부상 팀장님, 김유리 팀원과 장서연 조교께서 발행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Hansung Educare가 교수님들께 작은 도움을 드리기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교육역량개발센터장 **이형용** 교수(사회과학대학 경영학부)





# [ CONTENT ]

## 제1부 좋은 강의, 그 첫 시간을 위한 Knowhow

### 10 좋은 강의, 시작하기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 16 한성대학교 재학생이 말하는 좋은 강의란

### 20 좋은 강의란 학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의

조규태 교수 |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 25 좋은 강의란 배려를 통한 균형이 만들어낸 즐거운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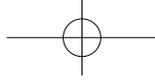
전주상 교수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29 좋은 강의란 사전준비, 본 강의, 사후관리가 일체(一體)된 강의

김효용 교수 | 예술대학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 34 좋은 강의란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

김남윤 교수 | 정보시스템공학과



### 제3부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 40 교수지원 프로그램

##### 40 01. 강의컨설팅

(강의컨설팅 참여 후기) 박지영 교수 |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 42 02. 대학교육협의회 교수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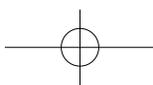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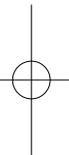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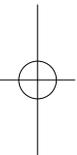
(대교협교수연수 참여 후기) 유상미 교수 | 공과대학

##### 44 03. 교수법워크숍

##### 45 04. 이러닝, 매체지원 및 소책자 발간

#### 46 학습지원 프로그램





제1부

좋은 강의,  
그 첫 시간을 위한  
Knowhow



## 제1부

좋은 강의, 그 첫 시간을 위한 Knowhow

# 좋은 강의, 시작하기\*

강의 첫 시간에는 학생, 교수자 모두의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묘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잘 가르치고 싶은 교수자의 욕심과 잘 배우고 싶은 학생들의 기대가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업 첫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면 교수자와 학습자 모두가 원하는 '좋은 강의'로 나아갈 수 있을까?

## 적어도 한 시간 전에 현장에 도착하라

강의 시작 전 1시간은 강의를 준비하기에 여유가 있는 시간이다. 강의실에 도착하면 조명, 영상, 음향장비를 점검하고 강의자의 목소리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편안한 상태에서 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칠판글씨 및 스크린의 글씨가 맨 뒷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도 직접 확인한다. 기능적인 실내 배치와 학습도구의 완비를 통해 준비된 환경은 좋은 인상을 학습자에게 심어줄 것이다. 또한, 강의 시작 전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경우 여유 시간이 있어야 처리가 가능하다. 누구나 약속시간에 늦은 경험이 있을 것이다. 여유 있는 강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한 시간 전에는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좋다.

## 학습자의 마음을 열라

학습자 앞에 설 때 불안감이 고조되는 시간은 시작 5분간 이다. 학습자의 시선이 집중되고, 서로 낯설기 때문이다. 첫 시간의 분위기는 한 학기 수업의 분위기를 결정한다. 따라서 첫 시간에는 학습자들이 한 학기동안 진행될 수업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이 수업

에 들어오면 미소를 짓거나 눈인사를 나누는 것도 좋다. 기분 좋은 말로 시작하고, 적절한 유머를 활용하는 것도 학습자와 교수자의 벽을 허무는 좋은 방법이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꽃」

첫 시간부터 학습자를 알고자 노력하고, 한 학기 내내 관심을 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구면의 학습자의 이름을 기억하였다가 강의 중 이름을 언급하면 강의분위기가 훨씬 부드러워 질 수 있다. 개인적 관심에서 비롯된 의미생성적 의사소통으로 학습자의 강의에 대한 경계심을 낮출 수 있다. 학습자를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가 아닌 ‘개개인의 학습자’로 보고 있다고 느낄 때, 학습자는 더 열심히 공부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한다.

## 수업 분위기 만들기

학습자는 새로운 수업에 대한 호기심으로 교수자를 바라보고 있다. 이 수업이 나에게 맞을까? 선생님은 공정할까? 평가는 어떤 방법으로 할까? 과제는 얼마나 많을까? 시험은 어떻게 칠까?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이 궁금해 할 사항을 미리 안내해 줄 필요가 있다. 과정, 목적, 규칙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강의실 내 의례가 형성될 때 학습자와 교수자는 강의에 완전한 참여자로 거듭난다. 학습자가 궁금해 할 사항을 뽑아 미리 답변을 준비하여 강의실에 들어간다면, 학습자에게 신뢰로운 이미지를 줄 수 있다.

### 교수자 소개하기

학습자는 과목에 대한, 그리고 교수자에 대한 궁금증 모두를 수업 첫 시간을 통해 해소하고자 한다. 해당 교과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교수자가 이 과목에 왜 흥미를 갖게되었는지, 이 과정을 가르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과목과 관련하여 교수자가 관심있는 사회적 이슈들을 안내해준다면, 본 수업에서 학습자는 학습의욕을 자극받을 것이다.

### 수업 기준 설정하기

이 수업에서 한 학기동안 무엇을, 왜 성취하고자 하는지 학습자들과 공유한다. 첫 번째 수업으로부터 두 번째 수업이, 그리고 두 번째로부터 세 번째 수업이 이루어짐으로써 수업이 일관성



## 제1부 좋은 강의, 그 첫 시간을 위한 Knowhow

있게 진행되어 무엇을 성취하게 될 것인지 설명해준다. 그리고 학습자와 교수자 사이의 규칙 등에 대해 명료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 상호작용을 통한 질적인 시간으로

수강신청정정기간 혹은 첫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첫 시간은 강의 계획과 한 학기 동안 마주 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간단한 설명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다. 첫 시간이 교수자와 학습자에게 의미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첫 시간에 참여하는 교수자와 학습자는 양적 시간이 아닌 질적시간을 가져야 한다. 교수는 한 학기 동안 함께할 학습자와 관계를 형성하고, 학습자와 학습자간의 상호작용을 권장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에 대한 교수의 관심을 보여주며, 이 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와 생각을 점검할 수 있다.

### 강의 시작 오프닝에 좋은 활동

#### 출석 부르기

“예!”라고 하는 대신 다음 단어로 대답하게 한다.

- ① 좋아하는 연예인 이름
- ② 좋아하는 숫자 이름
- ③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
- ④ 현재의 감정 상태(1~5, 높을수록 좋다.)

- 출처 : 이의용,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 학지사. 2014. p. 333.

#### 자기소개 방법

- ① 대표적인 키워드 3개로
- ② 내 비전과 10년 후 내 직업
- ③ Yesterday-Today-Tomorrow(어제의 나, 오늘의 나, 미래의 나)

- 출처 : 이의용, 떨리는 강사, 설레는 강사. 학지사. 2014. p. 333.

### 포스트잇으로 자기소개하기

- ① 참가자들에게 포스트잇 10매씩을 나누어 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이나 달란트, 특성을 쓰게 한다. 예를 들면, ○○에 탁월한, 준비가 잘된, 창의적인, 아이디어맨, 겸손한, 성실 그 자체, 7전 8기, 신사적인, 아름다운, 행복한, 꿈꾸는 사람, 작은 거인, 팔방미인, 리더십이 강한, 원칙대로, 책임감 있는 등등이다.
- ② 전체 포스트잇 중에서 자신이 선택하고 싶은 한 장의 포스트잇을 선택해 5~7명 정도씩 테이블별로 앉아 자신이 선택한 것을 가지고 이유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 ③ 서로를 잘 아는 부서나 동료들 중심으로 모임이 이루어져 있다면, 어느 한 사람의 포스트잇을 한 장씩 읽어 가면서 누구를 설명하는 표현인지 알아맞혀 보는 것도 좋다.

- 출처 : 이영민. 스팟 백과사전. (주)베이스캠프미디어. 2004. p. 85.

### 자기 긍정

돌아가면서 다음 문장을 완성해 보십시오.

내 이름의 뜻은 \_\_\_\_\_.

나의 외모 가운데 멋진 부분은 \_\_\_\_\_.(두 가지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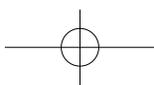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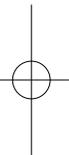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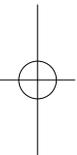
내가 건강을 위해 하는 일은 \_\_\_\_\_.

내가 뛰어나게 잘하는 일은 \_\_\_\_\_.

내가 친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것은 \_\_\_\_\_.

모든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다 함께 일어서서 서로를 위한 힘찬 박수로 찬사를 보내는 시간을 갖습니다.

- 출처 : 스티브 설리. Ice Break 백과사전. 도서출판 국제제자훈련원. 2001. p. 112.





## 제2부



#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 한성대학교 재학생이 말하는\* 좋은 강의란

“그 자체”로 좋은 강의는 이 세상에 없다. 왜냐하면 수업 그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과 입장에 따라 모두에게 다르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한성대학교의 교수자와 학습자는 각각 ‘좋은 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한성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란 무엇일까? 학생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 “학생들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어문학부 1학년

–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수업이 좋습니다. 교수님이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생각해보라는 과제를 내는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교수님의 생각도 공유하며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는 강의가 좋은 강의 인 것 같아요” | 지식정보학부 4학년

– “지난학기 이론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경험에서 우리나라의 강의를 통해 생각지 못 했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 경영학부 1학년

– “좋은 강의란 단순한 지식 전달보다는 생각하는 힘, 논리는 만드는 힘을 길러주고 그런 과정에 흥미를 부여하는 것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한국어문학부 4학년

–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들고 또 그 생각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각뿐 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도 많이 들을 수 있어서 한 가지 정답만을 받아드리는 것 외에 배울 것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 멀티미디어공학과 1학년

“학생들에게 열정과 동기를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동기에 따라 그 수업에 대한 열정과 집중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 기계시스템공학과 3학년

–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로 그와 관련하여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이슈거리를 제시하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느낍니다.” | 역사문화학부 2학년

“좋은 강의란 교수님과 학생들이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학생은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교수님은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좋은 강의를 이루어질 것입니다.” | 기계시스템공학과 3학년

– “일반적인 수업은 입시 위주의 수업과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에서의 강의라면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 데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경영학부 3학년

– “가르치는 내용만큼이나 그 내용의 전달 방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입장에선 정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 서로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지식정보학부 3학년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는 졸업하자마자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산업경영공학과 4학년

– “제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좋은 강의라고 생각되는 것 같습니다.(예를 들어 실무에 가장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 산업경영공학과 2학년

– “미래 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문적으로도 배우는 것이 많고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는 실무관련해서 배우는 것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역사문화학부 2학년



## 제2부

###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 “단순한 암기 위주 보단 이해가 쉽도록 알려주는 강의가 좋은 강의 아닐까요?”

| 지식정보학부 2학년

- “강의 자료와 사례가 매년 최신화 되며 과제와 수업이해도의 연관성이 높은 수업이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수업방식을 매우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수님의 수업이 저는 매우 좋았습니다.” | 경제학과 3학년
- “개념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전달해주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시와 실습위주의 수업이 이해가 잘됩니다.” | 경영학과 4학년

#### “어려운 용어나 번역해서 사용되는 용어만 사용하기보단 학생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수업이 좋은 강의인 것 같아요.” | 지식정보학부 4학년

- “학생들의 수준에 맞게 진행되는 수업이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 패션디자인전공 4학년
- “이미 알고 있는 학생을 위한 강의가 아닌 모든 학생들이 따라갈 수 있는 강의가 좋은 강의인 것 같습니다.” | 산업경영공학과 1학년

#### “강의 커리큘럼대로 이루어지는 강의가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 행정학과 3학년

“교재로 정한 책의 진도를 최대한 다 나가는 수업이 우선 좋습니다. 교재로 정한 책을 학기 내에도 배워야 완결성이 있는 수업이라고 느껴집니다.” | 한국어문학부 4학년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수업이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집중을 하고 수업에 임한다는 것은 강의가 재미있고 강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경제학과 3학년

## 한성대 학생들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란?

01

사교하는 강의

02

열정과 동기를  
심어주는 강의

03

교수와 학생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강의

04

실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

05

이해력이  
높은 강의

06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하는 강의

당신이 생각하는 좋은 강의는 무엇인가? 'Hansung Educare'를 더 읽어 나가기 전에 몇 분 정도 다음의 물음에 집중해서 대답해 보기를 권한다.

**물음1:** 개인적으로 좋은 강의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



---

**물음2:** 무엇이 강의의 성과를 저해하는가?

---



---



---

**물음3:** 좋은 강의를 운영할 수 있었던 'Best Teacher'들만의 비법은 무엇이였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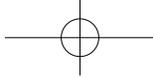
---



---



---



##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좋은 강의란 학생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의

조규태 교수 |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이 글은 좋은 강의에 대한 나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결코 우수한 교수와 훌륭한 강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참에 가까운 부족한 교수가 좋은 강의를하기를 희망하면서 고민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학생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강의'라고 생각한다. 즉 학생이 수업을 듣고, 그 수업 내용에 공감하거나 감동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바꾸고, 마침내는 학생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강의, 이것을 좋은 강의라고 생각한다.

물론 역사 수업에서는,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한 교수목표의 하나이다. 그리고 학생들도 지금까지 알지 못하였던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강의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 우리 학부에서 학생들은 한국사보다 유럽사와 미국사, 동양사 수업에 대한 강의평가가 높다. 이것은 해당 과목의 교수님들이 학식과 경륜이 뛰어나고 교수법이 우수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해당 과목에서 받은 신선한 충격이 하나의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나의 경우도, 학생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배운바 있던 정치사 중심의 『한국근대사』보다 일제강점기의 사회와 문화, 즉 도시와 철도·백화점·영화·가요·폭력집단 등을 다루는 『한국

사회경제사』의 강의평가가 높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교수는 부단히 새로운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과거의 역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굳이 강의의 내용을 변화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면서 10년이 넘는 강의노트를 사용한다면, 빛과 같은 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을 것이다. 동일한 시대의 역사를 다룬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견해와 학설을 소개하고, 새로운 그림과 엽서와 사진 등의 이미지를 제공하고, 다큐멘터리와 박물관과 관련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이 교수의 책무이자 본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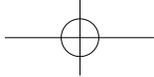
역사적인 사고력이나 판단력을 길러주고,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도 역사수업의 또 다른 목표이다. 역사수업에서는 “신라시대의 진골 - 고려시대의 귀족 - 조선시대의 양반 - 대한민국의 시민”과 같이 지배세력이 소수에서 다수로 변천되어 온 역사의 도도한 물결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력을 형성해주고, 100여 년 전의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여 대처할 수 있는 판단력도 육성해주어야 한다. 또한 민족의식과 민주의식 같은 역사의식도 심어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역사수업의 보다 큰 목표는 학생을 시대와 역사의 흐름에 맞게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50년 전 한 사랑방에서 행해진 교육이 유길준으로 하여금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서 유학하도록 하고, 만주 유하현의 민족학교에서 행해진 교육이 자신의 몸을 희생한 독립운동가를 양성하였듯이, 대학에서의 역사수업도 학생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즉, 세계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학생들로 하여금 세계 각국에 유학하여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게 하고, 국제적인 기구나 기업에서 세계와 인류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는 학생들로 하여금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수업을 해야 한다. 충분한 학습을 통해 수업 내용을 파악한 후, 수립한 목표와 계획대로 명쾌한 설명과 우수한 기법으로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한 장의 사진을 보고, 혹은 눈을 감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인물에 대해 생각해보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수업이 될 수 있다.

##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교수법 중 특색이 있는 것으로는 먼저 역할극 수업을 들 수 있다. 한국현대사 수업에서 1960년대의 정치와 사회를 가르치면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하였던 전태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일에 관한 역할극을 시도하였다.

먼저 한 학생으로 하여금 전태일의 출신과 성장, 평화시장에서의 노동자 활동, 노동의식의 성장과 노동운동 등에 대한 연극 대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수업시간에 학생들이 협의하여 각자의 역할을 정하도록 하였다. 물론 교수인 나도 한 배역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두 번 정도 각자 맡은 역할의 대본을 생동감 있게 운독하였다. 마지막으로 조별로 연습을 하도록 한 후, 학기말 시험 때 소강당을 빌려서 조별로 역할극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은 조별로 의상과 소품을 준비하고, 배경 화면과 음악도 마련하였다. 1960년대의 거리와 공장 등의 배경이 스크린에 비추어지고, 관련 음향이 흘러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각자 맡은 역할의 성격에 맞게 대사를 하며 행동하였다. 연극의 말미에 모든 학생들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 수업을 들은 한 학생이 3년 뒤 나를 만나 이 수업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고 하였다. 한 연구에 따르면 듣는 것보다 말하는 것이 오래 기억되고, 말하는 것보다는 직접 행동하는 것이 오래 기억된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역할극은 훌륭한 인문학 수업의 한 유형으로 여겨진다.

나의 또 다른 특색 있는 교수법은 ‘오리엔터링 수업’이다. 이는 T.V. 방송의 ‘1박 2일’과 유사한 방식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역사 유적을 찾아가보도록 하는 수업이다.

이는 조별로 문제를 주고 문제의 답에 해당하는 유적지를 찾아가 인증 사진을 제출하도록 하는 수업 방식이다. 자발적으로 문제의 답을 찾고, 또 해당 유적지를 직접 보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증대할 수 있다. 그리고 조별로 합심하여 문제를 풀게 함으로서 협동심과 공동체의식을 형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만약 날씨가 불순하면, 오리엔터링 수업 대신에 문제를 주고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답을 제출하도록 하는 ‘인터넷 서핑 수업’을 활용하면 좋다.

### Q3.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수와 학생간의 이해와 교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수업 시작 전에 학생의 이름을 외우고 수업 시간에 가능한 많은 학생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시험시간에는 감독을 하며 학생들의 이름을 외우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제는 갈수록 학생들의 이름을 쉽게 잊어버린다. 앞으로 수업 중에 조별로 사진을 찍어 학생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방법을 활용하려고 한다.

강의계획서를 나누어 줄 때 연구실 및 휴대폰의 전화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학생들이 연락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았다. 그렇지만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는 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앞으로는 조별 과제를 부여하고, 한번 이상은 연구실을 찾도록 하거나 카페에서 만나 지도하려고 한다. 그리고 카톡이나 밴드를 개설하여 학생들과 교수가 소통하는 장을 만들 것이다.

수업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하여 같이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학생들의 애로 사항을 들어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예컨대 사학과 출신이 아니어서 역사문화에 대한 지식이 적고, 논술형 답안의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편입생들을 모아 함께 식사를 하면서 수업에 대한 지도를 하였다. 그리고 중간고사 후 바로 채점을 하여 시험성적이 나쁜 학생들을 모아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면서 수업의 어려운 점을 물어보고 공부와 답안작성 요령 등을 안내하여 주었다.

####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수업을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은 학생들의 수준을 잘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수업 시 학생들이 매우 진지한 태도로 경청하고 질문에 곧잘 답하여, 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강의의 내용을 잘 이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런데 시험답안을 채점해보면, 강의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곤 한다.

강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의 정도와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1교시에 강좌 소개를 하는 것과 아울러 조사와 진단 테스트를 하려고 한다. 먼저 고등학교 때 한국의 근현대사를 배웠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초적인 시험을 보아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할 것이다. 그리고 Quiz와 중간고사를 본 후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근현대사 수업 시 학생들이 한자를 잘 읽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문장에 대한 해석은 고사하고, 지문에 나오는 한자 어휘도 잘 읽지 못하는 학생을 발견하곤 한다. 그렇다고 하여 한자를 너무 많이 섞어서 강의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떨어지므로 소수의 한자 어휘를 계속적으로 섞어서 강의함으로써 학생들의 한자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다.

####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교수는 학생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일방적으로 주입시키기보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것을 찾도록 하거나 그것을 유추해 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일방적인 강의보다는 발표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거나 적절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해당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이나 논문, 관련 사이트와 다큐멘터리 등을 소개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교수자는 칭찬을 통하여 학생들의 창의적 사고를 북돋아주어야 한다. 수준에 떨어진 답을 하였다고 학생을 책망하면, 학생은 비판을 걱정하여 창의적 생각을 하는 것을 중단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자는 가능한 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면을 드러내어 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강의를 위해 교수자는 학생들이 균형 잡힌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근현대는 이념의 대결이 치열한 시대이다. 이 시대의 역사와 문화를 가르칠 때에, 교수는 일방적으로 한편을 두둔하고, 반대편을 비난해서는 옳지 않다.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개화파와 군부세력을 미화하거나, ‘민주화론’의 입장에서 국가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공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기보다, 도리어 양편이 행하여 이룩하거나 끼친 역사의 공과 과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판단의 준거를 소개한 후에 학생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좋은 강의란 배려를 통한 균형이 만들어낸 즐거운 강의

전주상 교수 |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다만, 평소에 ‘균형이 있는 강의’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균형’은 저에게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균형이고, 또 하나는 교과목 영역 간의 균형입니다.

20여년전 강의를 처음 시작할 무렵, 열심히 강의하였으나,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다고 느꼈을 때, 적잖이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저의 강의 방식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강의를 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간의 입장과 상황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던 것도 큰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과 관련 지식 등 모든 것이 다른 상태에서 강의내용의 전달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양자 간의 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훌륭한 잠재력을 가진 학생들의 지식수준을 현재보다 더 효과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용어와 표현의 수준을 선택하고, 주요 개념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면서, 가능한 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사례들을 개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핵심 내용을 전달되었는지를 늘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한 학기 동안 강의할 분량을 설정하고, 각 부분에 시간 분량을 적절히 배분하려고 노력합니다. 학부 학생들에게는 특정 영역의 심층적인 전문지식 전달보다는 기본적으로 교과목의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알려주어 교과목의 전체 뼈대를 튼튼히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다가 저도 모르게 과도한 시간을 배분하게 되어 부분 간 균형이 무너지는 우를 범한 적이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도에 따른 시간 배분은 물론 필요하지만, 한 학기 전체의 강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씩 강의 시간에 학생들의 의견이나, 기본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져서 수업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것 이외에 특별한 방식은 없습니다. 다만, 가능하면 사례를 많이 제시하면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도 유사하겠지만, 행정학 계통 과목의 경우에도 많은 학생들이 본인들의 일상적인 생활과는 연결시키기 어려운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많이 제시해 주는 것이 학생들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교재들이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사례를 들어 설명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따라서 교재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들을 시간이 허용하는 한 많이 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대부분 공공부분의 실제 사례가 주가 되고(예를 들면, 언론에 충분히 이슈가 되었던 사례 또는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사례 등), 공공부분의 사례로 설명이 쉽지 않은 경우 민간 기업의 사례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나와 A학생, B학생이 C라는 일을 같이 한다고 상정해 보자, 이 경우 D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왜 일어날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있을까?” 와 같은 방식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의 경우 교과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하되, 내용(제도 등)이 나오게 된 배경, 실제 사례 등을 적절하게 추가해서 설명할 경우 역시 학생들의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 Q3.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강의의 수준과 내용 설정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 연락처를 알려주고, 강의와 관련하여 면담이 필요할 경우 사전 연락을 통하여 개별면담을 진행합니다. 면담을 신청하는 학생 수는 매우 적습니다. 다만, 면담이 이루어질 경우 진로 등 가능하면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종종 학교의 튜터링이나 뉴프론티어 프로그램 신청 등 다수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면서 지도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수업 시간 이외에 학생들을 접하는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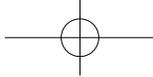
###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개념과 사례에 많은 비중을 두면서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개념을 점검하고, 이를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적절한 사례들을 준비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최근의 경제사회환경 변화와 관련된 이슈들을 가능하면 교과목의 내용과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재들이 학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표현들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재들의 내용을 어떻게 적절하게 해석(?)해 줄 것인가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관련 사례를 제시할 경우에는 물론 저의 주관적인 판단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가능하면 결론을 정해 놓지 않고 장단점을 제시하려고 노력합니다. 일방향적으로 결론까지 모두 제시할 경우 학생들이 편향된 사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A제도의 경우 현재 B라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C라는 개선이 필요한데, 이러한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또 다른 문제점은 없을까?' 라는 식의 설명입니다.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학생들의 몫으로 남겨둡니다.

###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학생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개인의 환경과 경험, 진로 등이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일입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니다. 한 학기의 특정 과목 강의로, 많은 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에서 개개인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의 방식을 개발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몰랐던 내용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이 공통적으로 작은 출발점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학생들의 상황과 한 학기 동안 이루어야 할  $+a$ 에 대하여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예이지만, 강의 시간에 가끔씩 학생들에게 질문을 할 경우, 다양한 답변들이 나오게 되는데, 가능하면 이를 포용하고, 연결하여 내용을 설명하려고 노력합니다. 학생들이 아직 남 앞에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한 어색함(?)을 계속 남겨두는 것은 앞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강의 시간 후 또는 개별적으로 학생들이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즉답을 못하고, 자료 또는 통계를 확인한 후 추후에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가장 당황스러워 하면서도, 가장 즐거움을 느끼는 때입니다.

#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좋은 강의란 사전준비, 본 강의, 사후관리가 일체(一體)된 강의

김효용 교수 | 예술대학 애니메이션·제품디자인전공

##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대학의 교육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교육 패러다임 또한 많은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예전에는 정해진 커리큘럼에 따라 각각의 교수가 본인의 과목을 정의하고 정해진 시수에 따라 수업을 충실히 진행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대학에서 대학 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지가 대학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최근 대학교육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좋은 강의'가 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강의에 대한 교수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좋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좋은 비료를 주고 잘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수업을 위한 충분한 사전준비, 수업중의 원활한 의사소통 그리고 수업 이후 또는 이외의 시간에도 학생을 존중하는 의식 등이 깨어있을 때 비로소 좋은 강의에 조금이라도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일반적으로 강의 준비를 위해서는 강의 시간의 3배 정도를 기준으로 잡는다. 분야에 따라서 그리고 과목마다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를 들어 3시간짜리 강의를 위해서는 적어도 9시간의 준비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강의계획서를 작성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하고 강의와 관련하여 학생들과의 면담과 같이 직접적으로 교안을 작성하기 위한 시간 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까지 합한다면 3배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강의의 질이 강의 준비 시간에 비례한다고 본다면 좋은 강의를 위해서는 기준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전 강의 준비가 필수적이다.

학기가 시작되면 15~16주간 매주 학생들과 만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지식 전달, 발표,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교수와 학생이 공통된 목표 의식 속에서 이해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강의에서는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된다. 주변에서 교수들이 판단 할 때는 매우 전문적이고 교육역량이 충분한 분인데 강의평가가 좋지 못한 경우를 종종 목격하곤 한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학생들과의 의사소통이 원활 하지 못했던 부분에 기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학생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역량 또한 ‘좋은 강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어가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자존감(self-esteem)이라는 단어를 매우 자주 접한다. 자존감은 말 그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다름 사람과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노력에 따라 삶에서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자기 확신이다. 분명 대학생들에게도 자존감은 미덕이고 강의에 대한 강한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는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학생들에게서는 이러한 자존감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낀다. 이전에 비해 매우 어린 나이 때부터 심한 경쟁에 놓이게 되고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대학 입학 이전부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로 진학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본인이 존중 받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교수 및 동료들 간의 관계나 강의에 임하는 태도도 보다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게 될 것이다.

###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부터 생긴 하나의 습관이 있다. 보통 수업들이 오전에 있는데 수업들어가기 전에 커피한 잔을 마시면서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을 스크랩하는 것이다. 스마트미디어시대에 다소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하루 중 가장 편안하고 머리를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인 동시에 하루를 시작하는 지식과 정보의 에너지를 담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거기에 덤으로 재수가 좋을 때에는 수업에 딱 맞는 정말 좋은 자료를 얻을 때가 있다. 보통 수업 시작하면서 시사적인 내용들로 잠시 위밍업을 하는데 (꼭 수업에 관

한 것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신문 기사 내용을 화제로 시작하게 되면 학생들의 집중도가 몰라보게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기사내용에는 다소 딱딱하고 건조한 전문적 지식도 있지만 대개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화법을 사용해서 인지 기사를 인용해서 전공 내지는 수업과 연계해서 좀 더 이야기를 풀어내면 학생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마 학생들이 신문을 자주 본다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에 이 방식이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겠지만 최근 학생을 비롯한 젊은 층들은 비디오 시대를 넘어서 스마트미디어시대를 살고 있기에 주로 본인의 핸드폰에서 포털 검색을 하다가 대중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신문기사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본 방법이 주효했다고 생각한다.

### Q3.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번은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밝게 웃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교수님께서서는 항상 이름을 불러주셔서 참 좋습니다.” 또 한 번은 한 학생이 다소 실망한 듯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교수님께서서는 다른 학생 이름 부를 때 성을 빼고 부르시면서 왜 저는 김00라고 부르시나요?” 그때 느꼈던 것이 학생들에게 이름을 잘 불러주고 친근하게 불러주는 것은 학생들을 기분 좋게 느끼게 하고 이는 수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그 때 그 수업들은 본인에게도 어느 때 보다도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기억된다. 누구나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친근하게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무척 기분 좋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강의실에서는 약 25~30명 가까운 학생들과 수업을 하게 된다. 교수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대 다수이지만 학생의 입장이 일대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강의도 이제 급속하게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이전의 일 방향적인 강의 방법으로는 이제 모든 학생을 만족시킬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일대 일의 입장에서 관심을 표현해 주는 것은 결국 수업의 만족도와도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맡고 있는 대부분의 과목들이 첨단 지식을 바탕으로 한 내용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강의 교안을 다듬는 작업이 다소 부담스러운 적이 있었다. 하지만 연구년 때 미국에서 1년간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생각하면 사실 지금의 강의 준비에는 크게 어려운 점은 없다. 미국에서는 영어 강의에다 1회 수업시간이 6시간(실기수업)이다 보니 강의 준비 시간도 보통 2~3배 걸렸던 것으로 기억된다. 다만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가장 어려운 점은 학생과의 의사소통이었다. 그것은 단지 언어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예술·디자인 분야에서는 시험대신에 학생의 작품으로 평가를 진행 한다. 작품이라는 것이 다소 주관적인 것이어서 교수와 학생간의 이견 차이가 종종 생기곤 하는데 예전에도 이러한 갈등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돌이켜 보면 그 당시에는 교수님의 의견이 나와 다르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못했던 시절의 정서가 있었다. 어쩌면 그때 그러한 이견을 교수님과 함께 고민하고 조절하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적잖게 당황스러운 이유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제는 시대가 변하였고 학생들이 지켜야할 예의를 갖추면서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고 당당하게 밝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결국 교수나 학생 모두 소통에 대한 접근 또한 서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끔, 아니 자주 고민하는 부분이다. 지금 좋은 강의를 하고 있는가? 교수의 역할은 무엇일까? 자신에게 되묻다 보면 강의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최근에 좀 더 구체화된 내용은 학생을 마음속으로 존중해야겠다는 것이다. 그것은 곧 학생들이 교수를 존중 하게끔 하는 방법이자 이를 통해 수업을 좀 더 가치 있게 생각하게 되리라는 판단에 의해서다. 하지만 이러한 존중하는 마음은 이전의 수업방식으로는 갖기 어렵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수업을 할 때 유학시절 입학동기이자 그 대학의 교수로 있는 미국인 친구 수업에 초빙교수로 함께 참여 한 적이 있었다. 그때 그 미국인 친구가 학생들에게 주었던 강의계획서를 보고 많은 것을 느꼈다. 일반적인 강의 스케줄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는데 강의에 대한 매우 세부적인 내용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혹시 모를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 대한 배려였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교수와 상담이 가능한지 그리고 어

편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대학의 규정뿐만 아니라 교수자신의 의견까지도 상세하게 적혀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만 2페이지 분량이어서 강의계획서는 전체적으로 6~7페이지에 달했다. 학생들을 존중하는 의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미국 대학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들도 이와 같은 학생을 존중하는 의식이 보다 더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에서 교편을 잡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권위적인 교육방식의 세대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인 스스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존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학생과의 관계에 대한 의식 변화, 교수법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과 같은 본인 스스로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대학 환경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뀌면서 교육서비스 측면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학생은 교육서비스의 대상 즉 고객이 되는데, 대학의 교육이 단지 고객을 만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는 아니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대학교육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점에서 학생을 존중하는 의식은 대학교육 백년대계(百年大計)의 가장 근간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좋은 강의란 무엇인가\*

좋은 강의란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강의

김남윤 교수 | 공과대학 정보시스템공학과

## Q1. 좋은 강의에 대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입니까?

좋은 강의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지식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가끔 수업 후 학생들과 얘기해보면 이론이나 기술 내용은 책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기술을 어디에/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런 경우에 시험 점수는 잘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술을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론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강의를 학생들의 창의성을 높일 수 있는 훌륭한 강의라고 생각한다.

## Q2. 기존의 교수법과 비교하여 본인만의 특색 있는 교수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새로운 이론을 설명할 경우, 이론의 필요성(why), 개념(what), 원리(how), 활용방안(when)

이라고 하는 단계를 가지고 진행한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시 MVC(Model, View, Controller)라고 하는 패턴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설계 기법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설명한다. 그리고 MVC에서 각 요소들이 담당하게 될 역할, 그리고 요소들간의 통신 방법을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MVC 패턴이 가지는 장단점을 분석한 후, 이러한 방식을 통해 설계된 응용 프로그램의 사례를 제시한다. 학생들이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통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새로운 시각으로 설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요소 기술의 구현과 시스템 관점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시적인 관점을 강조한다. 만약 이론을 머릿속에서만 이해하고 실제로 구현할 수 없다면 엔지니어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학생들을 지켜보면, 이론과 구현사이에 갭(gap)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갭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다양한 예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론이 실제 프로그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석한 후,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배양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특히 강조할 부분으로는 다양한 기술에 대한 구현 프로그램이 오픈 소스 형태로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 관점에서 각 요소 기술을 바라볼 수 있도록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를 진행한다. 예로서 IoT(Internet of Things) 기술을 활용한 헬스 케어 서비스를 생각할 때, 센서, 단말기, 서버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프로토콜 및 보안 기술 등에 대한 실제 사례를 소개하고 분석한다. 즉, 단편적인 지식의 함양보다는 요소 기술을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통합된 서비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과 교과과정에 있는 교과목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

### Q3. 수업 이외에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하여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습니까?

첫째, 학생 상담을 진행한다. 학생은 각자 살아온 환경이나 능력이 다르고, 적성 및 경력이 다양하다. 학생들이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청취함으로써 잠재 능력이나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진로 방향을 정하고, 구체적으로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에 대한 상담을 진행한다. 목표 의식이 분명할 경우, 학생들이 수업에 임하는 태도나 자기 계발을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 제2부 좋은 강의와 교수법 Knowhow

둘째, 자신만의 포트폴리오 형성을 위한 지도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공학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서비스 기획, 오픈 소스를 활용하는 방법, 설계 및 구현 방법 등에 대한 지도를 진행함으로써 자신감을 배양하고 취업 준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 Q4. 수업을 준비(진행)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며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십니까?

#### 1) 수업중 Q/A

지금까지 주입식 교육에 익숙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수동적으로 지식을 받아들려는 경향이 있다. 아무런 비판 없이, 단순 암기식으로, 질문 의식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경우가 있다. 수업 시간에 긴장하면서 많은 생각을 유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수업중 Q/A를 통해 참여를 유도한다. 평소에 수업에 관심없는 학생들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고 자신감을 고양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한다. 좀 더 나아가 강의 후반부에 학생들 간의 토론을 진행하기도 한다.

#### 2) 영문 강의 자료 활용

최신 IT 기술들은 미국이나 유럽쪽에서 선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문서를 이해하고 검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영어를 읽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생들이 네이버와 같은 국내 포털 사이트나 국내 도서를 통해 지식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확하거나 구시대 기술을 습득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영어 문서를 이해하는 능력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을 획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어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해외 원서를 이용한다면 학생들의 이해도가 낮아서 영문 강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의 반응을 분석해 본 결과, 영문 강의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영어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느낄 뿐만 아니라 영어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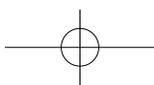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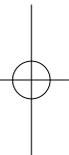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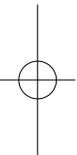
#### 3) 창의적인 과제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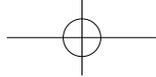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핵심 과제를 제시한다. 수업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조건이 존재하므로 과제를 통해 인터넷에 존재하는 자료도 검색하고 실제 구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 때 과제는 단순 기술의 구현보다는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

로 구성하고 있다.

### Q5. 좋은 강의를 위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이 수업을 통해 기술에 대한 통찰력과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코치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물이나 현상을 피상적으로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야말로 창의적인 사고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인 차이, 서비스적인 차이, 사용자 경험의 차이 등을 이해하고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수자의 첫 번째 임무라고 생각한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수업을 통해 영감(inspiration)을 얻을 수 있다면, 다양한 기술이나 서비스를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결국, 공학적인 통찰력과 영감을 통해 다양한 포트폴리오 형성함으로써 자신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시스템에 적용하는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요구하는 업무 수행 능력 및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 제3부



#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 프로그램 안내

## 교수지원 프로그램

### 01 강의컨설팅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에서는 교수님의 실제 강의를 촬영하여 수업을 다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강의의 질적인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강의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의컨설팅은 강의 개선을 위해 수업을 촬영하고 모니터링하면서 전문가의 자문을 기반으로 스스로 평가해 보는 과정입니다. 컨설팅 내용은 수업 시간 전체를 촬영한 강의 진행과정 분석 및 강의 환경 분석, 학생 설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는 비공개며 전 과정은 1:1로 진행됩니다.

#### 강의 촬영 및 자가 진단

**대상** 자신의 강의를 진단하고 싶은 교내 교원

**제공물** 강의동영상, 학습자요구조사 설문조사, 강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효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니즈 파악 및 교수자 동기부여

#### 강의컨설팅

**대상** 자신의 강의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피드백을 통해 강의를 진단하고 싶은 교원

**종류** 1) 서면 컨설팅 : 전문가 피드백 보고서를 통한 컨설팅

2) 면대면 컨설팅 : 전문가와의 만남을 통해 직접 피드백을 받고, 평소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 해결할 수 있는 컨설팅

**제공물** 강의동영상, 학습자요구조사 설문결과, 강의컨설팅 보고서

**효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 수합, 전문가 피드백을 통한 수업 개선

#### 강의컨설팅 진행절차



## 강의컨설팅 후기 | 인문대학 지식정보학부 박지영 교수

### 1. 좋은 강의란

제가 생각하는 “좋은 강의”란 개강부터 종강까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강의입니다. 교수자는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을 최대한 미리 예상하여 잘 컨트롤해야 하고, 미처 대비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적절히 대응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의 내용이나 전달 방식은 수업마다 다양하고, 수강생들은 더욱더 개성이 넘쳐납니다. 때문에 강의실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두근거림과 걱정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강의계획서의 분량대로 진도가 나가지 않는 경우, 중요한 부분이라 학생들이 꼭 기억해 줘야 했는데 의도대로 전달이 안 될 때, 흥미 있어 하는 학생들과 그 반대인 학생들이 서로 다른 눈빛과 손짓을 보여줄 때, 새로운 수업 방식을 도입했는데 저도 학생들도 모두 혼란스러워 할 때, 저는 강의를 자연스럽게 진행되는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강의평가 항목 중 제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강의에 전반적으로 만족하는가’입니다. 노력하고 싶어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항목이라, 학기말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버럭 소리를 지르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젠가 제 강의를 자연스럽게 잘 흘러간다면, 학생들도 전반적으로 만족할 지 모르겠습니다.

### 2. 프로그램 참여 계기

좋은 지원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까지 총 3번의 강의컨설팅을 받았는데, 받을 때마다 매번 새롭고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에는 참여가 망설여졌지만, 두 번째부터는 큰 거부감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도 컨설팅 촬영에 대해 협조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 3. 프로그램에서 인상 깊었거나 좋았던 부분

강의컨설팅의 첫 번째 특징은 자신의 모습을 학생의 관점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는 강의컨설팅의 방식이 직접적인 수업촬영 외에 질문지를 이용하기도 한다는데요, 강의 촬영만큼의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꼼짝 않고 앉아서 한 두 시간씩 듣는 경험을 해야 하고, 평가자의 입장에서 평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강의식 수업뿐 아니라 토론식이나 발표식 수업에서도 강의촬영은 좋은 경험이 됩니다. 학생들의 토론이나 발표에 제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학생들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2014년부터는 카메라 2대를 이용해서 교수자뿐 아니라 학습자도 같이 촬영해서, 강의동영상에 함께 넣어주었습니다. 동영상 속의 학생들을 보니 제가 수업 시간에 보고 기억했던 모습과 약간씩 달랐습니다. 저는 이번 컨설팅 때, 학생들의 모습을 보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수업시간에는 산만하거나 수업 물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제 주의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동영상에 담긴 학생들을 다시 보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 학생들과 제대로 소통했는지를 되문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교수법 관련 강의에서 문제 학생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수업을 좋은 분위기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내용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학생들의 영상을 보니 그것이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 4. 프로그램 참여 소감

좋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2 대학교육협의회 교수연수

교육역량개발센터에서는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지식을 익히고, 수업 경험을 공유하며, 실습을 통해 교수법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외부 교수법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외부 기관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는 교수법 연수프로그램, 진로상담과정 등이 있습니다.

### 대교협교수연수지원 목적



### 20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교수연수프로그램 일정

참가문의 : 임승희 선생님 내선) 4456

과정명개설	일정	과정명개설	일정
1 교수법, 그 고정관념깨기 과정	6.29-7.1	16 학생면담 기법 및 스마트폰 앱 활용 교수법 과정	6.29-7.1
2 문제중심학습(PBL)대학 교수법 과정	7.8-7.10	17 에버노트를 활용한 교수법 과정	7.24-7.26
3 수업 몰입도를 높이는 정서활용 교수법 과정	7.8-7.10	18 자기조절학습(SRL) 중심 대학 교수법 과정	7.15-7.17
4 대학생 동기유발을 위한 교수전략 개발 과정	7.20-7.22	19 토의수업전략 : 퍼실리테이션 스킬 향상 과정	7.6-7.8
5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과정	6.29-7.1	20 유튜브 기반 동영상 제작과 강의활용 교수법 과정	7.27-7.29
6 영어강의 능력 향상 과정	7.6-7.8	21 효과적인 영어강의 교수법 과정	7.22-24/12.16-18
7 학습 동기와 참여 유발을 위한 효과적인 교수법 과정	7.6-7.8	22 신입교수 과정	7.29-7.31
8 블렌디드 이러닝 및 SNS 기반 교수전략 개발 과정	7.20-7.22	23 교과목 티칭 포트폴리오 제작 과정	7.20-7.21
9 소통하는 강의를 위한 토의수업 전략 과정	7.27-7.29	24 동영상 강의자료 제작 실무 단기 과정	7.14
10 스마트기기 활용과 SNS강의를 위한 교수법 과정	6.22-6.24	25 에버노트를 활용한 교수법 단기 과정	12.22
11 팀기반학습(TBL) 수업전략 과정	6.24-6.26	26 프레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법 단기 과정	12.22
12 파워포인트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교수능력 향상 과정	7.8-7.10	27 간호학과 교과목 티칭 포트폴리오 제작 단기 과정	12.14
13 소통과 동기유발을 위한 액션러닝 강의전략 과정	7.22-7.24	28 스마트기기와 SNS 강의 교수법 단기 과정	12.23
14 프레지를 활용한 스토리텔링 교수법 과정	6.22-6.24	29 파워포인트 인포그래픽 강의 자료 제작 단기 과정	12.23
15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폰 앱 활용 교수법 과정	7.15-7.17		

## 대학교협교수연수 후기 | 공과대학 유상미 교수

###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폰 앱 활용 교수법 과정

2012년도부터 모교에서의 강의전담 교수로서의 저의 삶은 그 이전의 강사로서의 10여 년의 삶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갖는 시간이었습니다. 한성대학교 1기 공대생, 지금의 멀티미디어 공학과의 전신인 “전산통계학과”로 입학하던 그때나 지금이나 제 자신은 부족하고 모자란 제자임에 분명하나, 대학의 학부 과정을 거치며 학식과 인품이 높은 신 스승님께로부터 지식과 사람됨을 배웠고, 지금까지 여전히 저의 스승님께로부터 많은 배려와 보살핌을 입으며 후배들 앞에 설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스승님께로부터 배운 지식과 경험을 후배이자 제자인 학생들에게 전달한다는 것은 짜릿한 즐거움이며 그러한 기쁨은 제 스승님들께서 베푸신 넘치는 은혜의 덕을 입었음을 잘 알기에, 한 해 두 해가 지나갈수록 제가 해야 할 역할과 임무에 대해 더 큰 무게의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 역시 스승님께 도움을 청하여 고견을 얻음으로써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최근 학내의 교육역량개발센터로부터 “교수법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제 스스로 저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교수법 수업은 「소셜미디어 기반 스마트폰 앱 활용 교수법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은 스마트폰을 수업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와 이를 사용해 보는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다양한 모바일 앱에 대한 사용법들도 많이 소개되어 IT 기술을 수업에 적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서베이몽키”를 이용하여 모바일 설문조사를 하고, QR코드를 제작하여 강의소개에 활용합니다. “모비즌”을 이용하면 모바일 화면상의 내용을 교수용 PC로 전송, 이 화면이 바로 빔프로젝트로 투영되어 학생과 교수자가 보다 역동적인 수업을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손쉽게 강의교재를 제작하고 다시 편리하게 수정·보완하고, 클라우드에 업로드하여 학습자와 공유하는 방법 등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컴퓨터교육학을 전공하였기에 나름 다양한 기법들을 저의 수업에 시도해 왔었지만, 본 교수법 연수를 통해 제 수업에서의 보완점을 발견할 수 있었고, 새로이 쏟아지는 앱과 그것들에 대한 적용 사례들은 저의 수업 상황을 반추해 보게 함으로써 다시금 저를 담금질하기에 충분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저의 모자람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교육역량개발센터 선생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무엇보다 많은 부분에서 일천한 제게 후배들을 이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총장님과 지금까지 어려모로 저를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저의 소중한 스승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스승님께로부터 받은 지덕과 제자에 대한 사랑을 후배들에게 열심히 전달하며 주신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 03 교수법워크숍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에서는 가르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교수법 워크숍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수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다양한 교수법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교수법을 소개하고, 교수활동 및 강의의 질 제고를 위해 교수법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형식 : 강연  
운영대상 : 한성대학교 전임교원

#### 2014 교수법 워크숍 프로그램

<p><b>제1회</b></p> <p>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게 하라 PBL(문제중심학습) 교수법</p> <p>이재경 교수 (숙명여대)</p> <p>2014. 11. 6. (목)</p>	<p><b>제2회</b></p> <p>경영학부 강의평가 우수자의 교수법 강의</p> <p>김용식 교수 (한성대)</p> <p>2014. 11. 24. (화)</p>	<p><b>제3회</b></p> <p>잘 가르치는 교수법</p> <p>이의용 교수 (국민대)</p> <p>2014. 11. 25. (화)</p>	<p><b>제4회</b></p> <p>의생활학부 수업사례를 통해 본 효과적인 교수법</p> <p>이재경 교수 (숙명여대)</p> <p>2014. 12. 18. (목)</p>
--	---	--	--



스스로 답을 찾아 나서게 하라(PBL : Problem based learning)



잘 가르치는 교수법

## 04 이러닝, 매체지원 및 소책자 발간

01



### 매체제작

사이버강의, 온라인보강, Flipped Learning, 그 외 다양한 수업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여 교내 교강사들이 보다 수월하게 강의자료를 준비하고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02



### 교직촬영

첨단 촬영강의실을 이용하여 교직 수업에서 진행되는 모의수업을 촬영하고, 촬영동영상을 교수님과 학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자격 : 학부 교직과목, 교육대학원 교직과목

신청가능 촬영 강의실 : 미래관 DLC, 미래관 ELC

03



### 스튜디오 촬영강의실

교육역량개발센터에서는 디지털 영상장비 및 첨단 촬영강의실을 운영

04



### 교수법소책자

학내 우수 교수자(우수강의, 동료추천) 대상으로 교수(Teaching)활동 및 학생지도에 대해 인터뷰 한 후 이를 자료화 하여 교수자간 강의전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대상 : 학내 우수 교수자

05



### 우수강의 수필수상집

학생들이 경험한 실제 우수강의 사례를 모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상집을 발간. 이를 공유하여 학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더 나은 수업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함

대상 : 전체교수

공모집 배부 : 매 학기 말



# 학습지원프로그램



**한성튜터링**  
 특정과목에 우수한 실력을 갖춘 선행학습자 혹은 전공 성적이 우수한 또래 학습자가 해당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습자와 팀을 이루어 공부하는 학생 주도 협동학습 프로그램  
**대상** : 평점 3.5이상, 해당과목에 A이상을 받은 학생(튜터)과 전체학생(튜티)  
**특전** : 장학금 지급(성적에 따라 차등지급)



**외국인유학생멘토링**  
 외국인 유학생과 본교 재학생이 1주일에 4시간 이상 만나 학교생활안내 및 기초학습을 돕는 프로그램  
**대상** : 평점 3.0이상인 학부생  
**특전** : 장학금 지급(활동내용에 따라 차등지급)



**학습컨설팅**  
 학습활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의 학습활동 전반을 파악하여 더 나은 학습 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프로그램  
**대상** : 전체 학생



**학습법워크숍**  
 학습법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습법에 관련한 특강을 실시하는 학습력 향상 프로그램  
**대상** : 전체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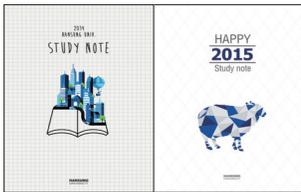
**리포트공모전**  
 우수 리포트 시상과 더불어 자료집으로 발간하여 학습자들이 리포트 작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대상** : 전체 학생



**우수강의 수필공모전**

학생들이 경험한 실제 우수강의 사례를 모집하고 이를 공유하여 학내 구성원으로 하여금 더 나은 수업에 대해 성찰할 수 있도록 함

대상 : 전체학생



**학습법노트**

학생들의 대학생활 적응 및 학습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습활동에 최적화된 노트를 개발하여 배부함

## 융합인재양성프로그램



**데일리카네기 리더십 프로그램**

자신감 및 의사소통능력 등을 향상함으로써 비전을 수립하고 자기주도적 대학 생활을 통한 한성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대상 : 전체 학생

## 기타프로그램



**한성여고 멘토링**

교직이수자 또는 성적우수자가 한성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활동을 도와주는 멘토링 프로그램

대상 : 교직이수자 및 학점 3.5이상인 학부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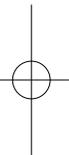
특전 : 봉사활동 시간 인정, 장학금 지급



**한성여고 방과후 교수특강**

한성여자고등학교와 상호교류지원협약체결에 근거한 한성여고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교양 특강

대상 : 한성여고 성적우수 학생



## Hansung Educare 제 4호

**발행처** | 한성대학교 교육역량개발센터

**발행인** | 이형용(교육역량개발센터장)

**담당** | 유부상, 김유리

**편집** | 장서연

**발행일** | 2015. 2.

**주소** | 136-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전화** | 02-760-5816

**E-mail** | hancti@hansung.ac.kr

**Homepage** | www.hansung.ac.kr/~cti

